



안녕하세요! 저는 1984년 입회하여 수도여정을 걷고 있는 박란희 수녀입니다. 그동안 저는 강진 성요셉여중고와 시각 장애 학교인 충주성모학교에서 교사로 부천 소명여중에서 교장으로 학교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시설인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아들과 함께 했고 광주 봉선동 본당과 시카고 본당에서 전교수녀 사도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저는 우리 수녀님들과 영적동반을 하면서 또 학생들과 본당교우들의 내적 어려움을 접하면서 늘 전문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목말랐던 터에 2003년에는 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시카고 CTU와 클라렛 센터에서 영성과 영적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심리상담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영성과 접목할 수 있었고 더 풍요로운 영성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씨튼영성센터에서 전문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은 수도자와 신학생들의 영적 동반을 포함하여 대부분 현 시대의 심리적인 가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통해 저는 이들의 다양한 고뇌와 아픔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제 작은 마음에도 이 아픔을 품을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몇 해 전부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여성들을 위한 집단상담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을 위한 상실 치유 집단상담,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수련생들을 위한 내면아이 치유 집단상담, 그리고 올해는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종신서원 준비반 수녀님들을 위한 참만남 집단상담을 하면서 내적 성장에 동반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내담자들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면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던 내담자가 존재감을 찾고 내적 힘을 키워가는 것을 보거나 자존감이 부족해 힘들어하던 내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던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갈 만한 세상임을 재발견하고 편안함을 얻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귀한 소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의 변화된 삶에서 주님의 현존을 목도합니다.

제가 하는 상담뿐만이 아니라 한국상담학회와 한국가톨릭상담심리학회에서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련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로서의 활동과 상담 교육을 위한 강의 또한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상처받은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마음깊이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치유해주시는 전문상담사는 내 안에 계시는 스승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꺾박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는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Greetings from Korea! My name is Sister Park, Ran Hee. I entered in 1984, for most of my life I have been involved in education ministry as a teacher at St. Joseph Girls' High School in Kangjin, St. Mary School for the blind in Choongju, and a principal at Somyong Middle School in Pucheon. Besides that, I worked for the visual impaired at the Sacred Heart Residence, and for some years I worked at parishes such as Bongsun-dong parish in Gwangju, and Korean Martyrs' Church in Chicago. For the last ten years, I also accompanied our Sisters as a spiritual companion, and met many students and parishioners, and I came to find that they are looking for

help to solve their inner challenges and problems. Through those times with them, I felt my limitation as a counselor, so that I began to study counseling to acquire a certificate as a professional counselor. In 2012 I finished the program of Spirituality and Spiritual Director at CTU and Claretian Center in Chicago, and it was a great help to meet the needs of something missing in counseling psychology. Now I am working as a fulltime counselor at Seton Spirituality Center in Seoul.



Those whom I meet are diverse -- from religious and seminarians to lay people. Most of them are asking help for their psychological poverty. For them, I provide personal counseling, couple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so that they can be consoled and heal their hurts and sufferings by God's mercy. I also hope that my heart can be filled with the mercy of God to embrace their wounded hearts. As a counselor, I had a meaningful time to work for women who were suffering from sexual abuse and domestic violence, group counseling for family members of the victims of the Korean Ferry Disaster, and a few years ago an inner healing group for the people who were in an internship for professional counseling. This year, I accompanied the perpetual vows preparation Benedictine Sisters of Tutzing, Seoul, as a group counseling director. Seeing and accompanying the couples who were at risk of divorce, and helping them to recover their relationship through counseling, and being with the client so that she or he could recover self-esteem and get inner peace, and helping the client at risk of suicide to find the meaning of life, I can rediscover my call coming from God. And I find God's presence in the midst of my clients.

Not only working as a counselor, but also working as a supervisor for the interns who want to be a professional counselor as a member of the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and Korean Catholic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ion, is my other vocation at this point. I want to say that working as a counselor is becoming Jesus Christ who heals, communicates, and feels empathy for the world and its people wounded by selfishness and unlimited desires of human beings...

God who will not break a bruised reed, and not snuff out a smoldering wick, please be praised!!

